



4면

남원 글로벌캠퍼스 추진본부 공식 출범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음 5월 16일)

제37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소리축제 24번째 여정 K-판소리 세계화 도전

8월 13~17일까지 '본향의 메아리' 주제로 전주서 개최
국립극장 공동제작 창극 '심청', 올해 축제 하이라이트
현대음악과의 융합 통한 판소리 외연 확장 시도도 주목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문화예술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K-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도전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10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추진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추진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2025년 소리축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본향의 메아리'를 주제로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총 61개 프로그램, 73회 공연으로 구성돼 국내외 관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창극 '심청'이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오페라 연출가 요나 킴이 극본과 연출을 맡고, 작창에는 한승식, 작곡에는 최우정 등 국내의 정상급 창작진이 참여했다.

전통 '심청전'을 효녀의 이야기에서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상징으로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개막공연으로 세계 초연되며, 창극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시도를 담는다.

이와 관련해 소리축제 측은 국립극장과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통예술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해 공동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심청'을 글로벌 대표 콘텐츠로 확장에 해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소리축제는 2001년 첫 회를 시작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장수 축제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음악전문지 송라인즈(Songlines)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페스티벌 25'에 이름을 올리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판소리 다섯 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완창 공연으로 구성되며, 김일구, 이난초, 조상현, 신영희, 윤진철 등 국창급 명창들이 출연해 판소리

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젊은 소리꾼을 발굴하는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 창작 판소리 오디션 '소리 프론티어', 아침 음악회 '전주의 아침' 등 다양한 기획공연도 마련됐다.

현대음악과의 융합을 통해 판소리의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도 주목된다.

'범 내려온다'로 대중적 인기를 끈 이남치를 비롯해 국악과 팝을 넘나드는 송소희, 클래식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고잉 홈 프로젝트',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풍류대장' 우승팀 서도밴드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세계 각국의 음악과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12개국 12개 팀이 초청돼 월드뮤직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며,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스페인 플라멩코, 민속 음악, 바르코 음악 등으로 구성된 '스페인 특집'도 특별 편성됐다.

이번 축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4억5,000만원, 3년간 최대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축제 측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 공연 예술 전문가 초청과 글로벌 마켓 운영 등 K-전통예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장은성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김진법씨 등이 국정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